

【 해외금융뉴스: 일본 】

손보업계, 신흥 해상보험 시장 진출 본격화

□ 최근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및 해상보험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일본 손보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해상보험은 해운업자의 선박이나 화물이 사고 등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무역 물동량이 많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보험임.
-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손보사들은 2001년부터 7년 연속 해상보험 순이익이 증가했으나, 급속한 경기후퇴와 엔고 등의 영향으로 2008년 11월부터 자동차와 전기제품과 같은 대형 화물량이 급감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이 계약하는 해상보험 수입이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음.
- 특히, 올해 1월 해상보험 전체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손보업계는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있음.

□ 대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수출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 해상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손해보험 재팬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작년년부터 화물보관이나 수송상황을 기초로 리스크를 진단해 개선책까지 제공해 주는 ‘물류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한 개정 해상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보험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고아손보는 작년 7월에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0월에는 러시아에도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해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주력 중임.

(손해보험재팬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2/17)